

셋다운제 10년만에 폐지...청소년 게임 강제서 자율로

청소년보호법 개정 16세 미만 밤 12시~6시 게임 금지 조항 삭제 수면권 보장 등 논란 일단락...모바일 게임 성장으로 실효성 줄어

‘애들은 가라’ 식 제도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게임 셋다운제’(이하 셋다운제)가 지난 1일부터 폐지됐다.

셋다운제는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제도다. 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법을 시행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2011년부터 10년여 동안 유지됐던 셋다운제는 게이머들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셋다운제는 2004년 정부가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하고 ‘게임중독’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강제적 셋다운제가 시행되자 청소년들은 ‘신데렐라’ 신세가 됐다. 오전 0시가 되면 부모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게임이 강제 종료됐던 것이다.

셋다운제가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빚발쳤다.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로

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청소년은 공공연히 부모 명의로 게임을 실행해 법망을 벗어났다. 온라인 게임을 제외한 오프라인 게임, 콘솔 게임, 모바일 게임 등은 사용자가 16세 미만인지 파악할 방법이 없거나, 기술적으로 이용시간 제한 기능을 적용하기 힘들어 셋다운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2012년 프랑스에서 열린 프로그래머대회에 참가했던 프로그래머 이승현(당시 15세)군은 대회 도중 오후 11시 58분이 되자 게임이 강제 종료돼 경기를 포기해야 했다.

셋다운제는 국내 게임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셋다운제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시장 성장률은 2011년 18.5%에서 2012년 10.8%, 2013년 -0.3%로 급락했다.

원래 목적이었던 ‘수면권’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에 따르면 셋다운제 도입 이후 초·중·고생의 수면 시간은 2011년 9.1시간에서 2013년 8.3시간으로 오히려 줄었다. 중학생 또한 같은 기간 7.8시간에서 7.2시간으로 감소했으며, 2020년까지 이들의 수면시간은 큰 변동이 없었다.

정부는 지난 31일 모바일 게임이 성장하면서 온라인 게임 비중이 줄어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유튜브 등 청소년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늘어나면서 셋다운제의 실효성은 더욱 줄었다고 셋다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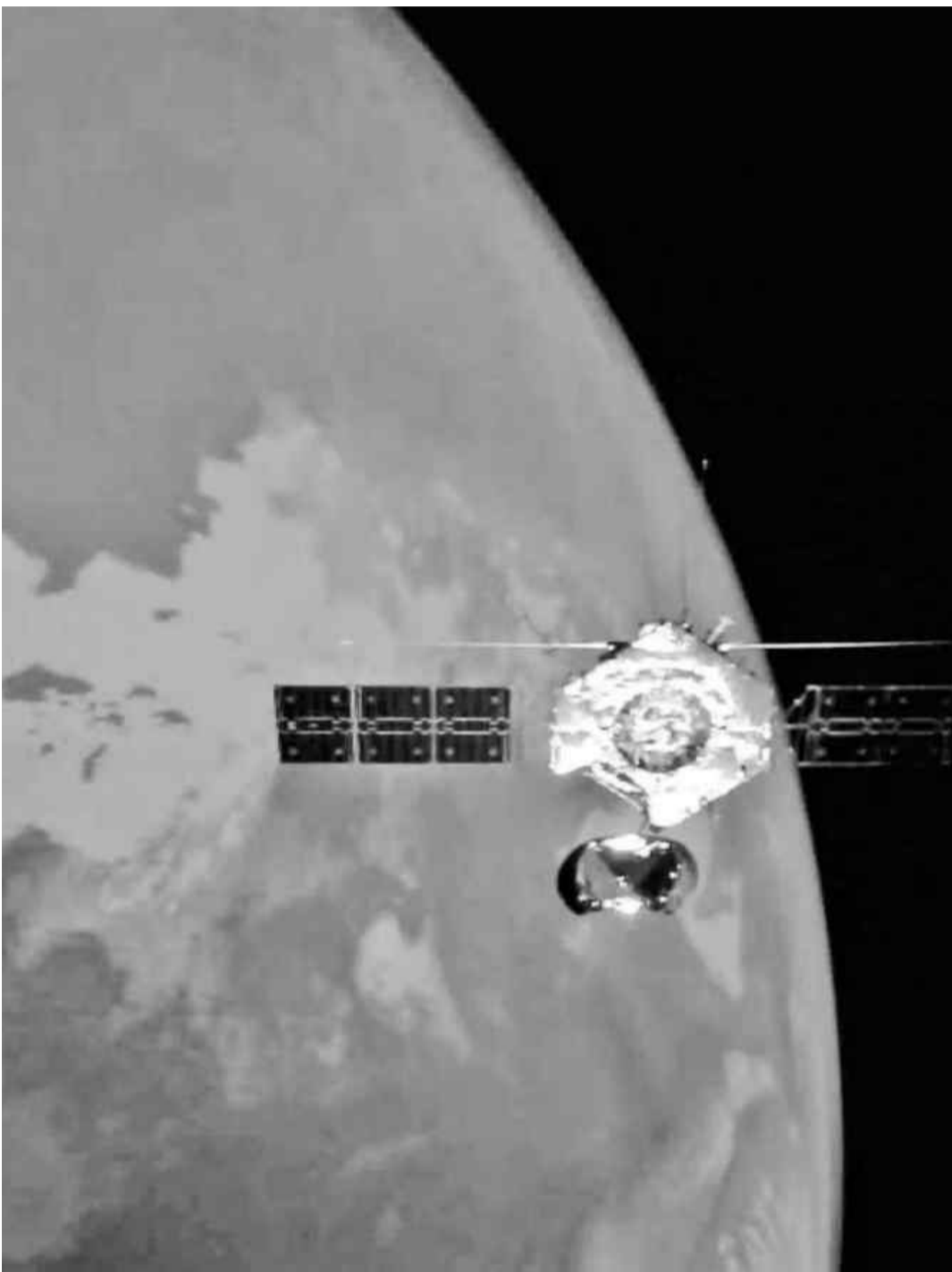
폐지 배경을 밝혔다.

1일 이후 셋다운제 관련 제도는 ‘게임시간 선택제’(문체부 게임산업법)로 제도로 일원화된다. 이로써 게임 접속이 차단되는 시간을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게임 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며 “게임 이용 교육과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중국 화성 탐사선 텐윈-1호가 보낸 화성 사진



지난 1일 중국 국가우주국(CNSA)이 텐윈-1 화성 탐사선 사진을 공개했다. 탐사선은 현재 지구에서 약 3억5000만km 떨어진 채 화성 궤도를 돌고 있다. 중국은 이 탐사선으로 미국에 이어 화성에 착륙선을 보낸 두 번째 국가가 됐다. /연합뉴스

대형 로켓 첫 비행부터 달 착륙까지...우주탐사 올해도 계속

NASA, SLS 3, 4월경 첫 발사 중국 새 우주정거장 ‘톈궁’ 완공 스페이스X ‘스타십’ 3월 궤도비행 러시아 ‘루나25’ 46년만에 달 착륙

올해도 우주로 향한 인류의 도전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과 과학 전문 매체 등에 따르면 화성 유인탐사를 준비하기 위한 대형 로켓의 첫 비행부터 중국의 새 우주정거장 완공과 달 및 화성 탐사선 발사에 이르기까지 지난해 못 지않게 다양한 우주 계획이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화성 유인탐사를 염두에 두고 개발해온 차세대 대형 로켓인 ‘우주 발사시스템(SLS)’을 3월 중순이나 4월에 처음 발사할 예정이다.

SLS는 달 궤도 첫 무인 비행에 나서는 유인 캡슐 ‘오리온’을 탑재하고 우주로 날아오른다. 이 임무는 미국의 달 복귀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Artemis)’의 첫 비행 임무이기도 하다.

아르테미스 계획에 투입되는 SLS 블록1 로켓은 길이 111.25m, 지름 8.4m에 달하는 2단 로켓으로 약 95t의 화물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 1회 발사 비용만 약 20억 달러(2조3800억원)에 달한다.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 우주선으로 개발 중인 ‘스타십’도 이르면 3월 중에 첫 궤도 시험비행에 나설 예정이다. 램터 엔진 29개로 구성된 ‘슈퍼헤비’ 로켓에 스타십을 싣고 우주로 나가 잠시 궤도비행을 하다 대기권에 재진입해 하와이 인근 태평양에 침수하게 된다.

보잉도 5월 중에 유인 캡슐 ‘CST-100 스타라이너’ 무인 시험 비행을 시작으로 경쟁사인 스페이스X 따라잡기에 나선다. 스타라이너가 무인 시험비행에 이어 유인 비행까지 성공하면 국제우주정거장(ISS)을 오가는 민간우송은 복수 경쟁체제가 된다.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은 올해 안에 첫 궤도 로켓 ‘뉴 글렌’을 선보일 예정이며, 보잉과 록히드마틴의 로켓 제조 합작회사인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ULA)’는 아틀라스 5호와 델타 4호 로켓을 대체할 ‘발칸 센토(Vulcan Centaur)’를 발사할 예정이다.

러시아도 달 남극을 향해 탐사선 ‘루나(Luna)

25’를 발사한다. 당초 지난해 10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착륙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돼 올 7월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루나 25호가 계획대로 발사돼 달 착륙에 성공하면 러시아는 1976년 루나24 이후 46년만에 달에 복귀하며, 최초로 달 남극을 탐사하게 된다.

유럽우주국(ESA)과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가 합작해온 ‘엑소마스(ExoMars)’ 미션의 ‘로잘린드 프랭클린’ 로버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사될 예정이다.

영국 화학자의 이름을 딴 로잘린드 프랭클린은 내년 6월에 화성에 착륙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말 발사한 NASA의 ‘쌍(雙) 소행성 궤도수정 실험’(DART) 우주선은 9월 말 지구에서 약 1100만km 떨어진 곳에서 소행성 디디모스의 위성 ‘디모르포스’를 만나 초속 6.6km로 충돌, 인류 최초로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실험을 진행한다.

7월에는 금속으로만 된 소행성 ‘16 프시케’(Psyche)를 향해 탐사선이 발사된다. 이 탐사선은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에 실려 발사되며, 2026년에 지구에서 약 2억4000만km 떨어진 화성과 목성 사이에 도착해 프시케 소행성의 궤도를 돌며 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5G 상용화 2년7개월만에 가입자 2000만명 돌파 SK텔레콤 952만명 1위

국내 5G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어섰다. 2019년 4월 상용화 이후 2년 7개월만의 기록이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통신서비스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5G 가입자는 작년 11월 말 기준 218만 9808명으로 전월 말 1938만 970명에 비해 80만 8838명(4.2%) 증가했다.

LTE 서비스가 상용화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입자 2천만명을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1년 6개월이 더 걸린 기록이다.

하지만 2020년 11월 1093만 2363만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선 지 1년 만에 약 1000만명이 늘어난 정도로 가입자 증가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했지만 삼성전자와 애플을 중심으로 5G 스마트폰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가입자 증가 폭이 커진 것으로 업계는 풀이했다.

이동통신사들도 꾸준한 서비스 가능 지역(커버리지)을 넓히고 통신 품질을 개선하며 가입자 확보에 나섰다. 이통사별 5G 가입자는 SK텔레콤

952만 150명, KT 615만 7643명, LG유플러스 446만 2101명 순이었다.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도 1013만 6238명으로 1000만명 고지를 밟았다.

2020년 7월까지 감소하던 스마트폰 가입자는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00만명 넘게 증가했다. 업계에선 고가의 5G 요금제를 부담스러워하는 LTE 이용자들이 LTE 스마트폰 요금제와 자급제 단말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090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